연암 그룹의 책들

1. 연암 박지원(1737～1805)과 그 주변

- 반남박씨 가문, 당대 최고의 노론 핵심 가문. 조부 朴弼均은 辛壬士禍 때 노론과 소론이 분열되자 집안의 당론을 노론으로 이끄는 한편 영조 즉위 후 정계에 진출하여 적극 활동한 인물. 처가 쪽 역시 노론 핵심 가문. 장인 李輔天과 그의 아우 李亮天은 박지원의 스승이면서 동시에 송시열-김창협의 학맥을 잇는 핵심 노론 가문. 16세(1752)에 이보천의 딸 전주이씨와 결혼.
- 그는 1770년 監試 兩場에서 모두 장원을 하여 영조의 知遇를 받음. 이를 본 사람들이 연암을 會試에 급제시킴으로써 功을 삼자는 時議가 있었으나, 1771년 무렵부터 과거를 廢하게 되었음.
- 이렇게 지내면서 많은 벗들을 사귐. 흔히 '연암그룹' '白塔詩社'라는 표현은 그들을 아울러 통칭하는 용어임.
- 주 구성원 : 홍대용, 鄭喆祚(당대 최고의 재야 과학자. 연암이 북경 관상감에 갔을 때 각종 과학기구를 보면서 정철조 집에서 보았노라고 회상함),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백동수 등 / 서상수, 이덕무, 유득공, 이희경, 이희명, 박제가, 정수, 김용행, 이공무 등은 서출
- 박지원의 友道 역시 하나의 초월적 규범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음. 즉 천고의 옛 현인을 벗삼고 후일에 나를 알아줄 사람을 기다린다는 식의 말보다는, '지금 여기'에서의 生을 능동적으로 구성하고 사회가 규정하는 '나'를 넘어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변이되기 위한 하나의 場이 바로 벗들과 구성하는 공간이었음. 그런 점에서 友道를 중시함.
- 1773년 무렵, 연암은 처자를 경기도 광주 석마의 처가로 보내고 서울 전의감동에서 혼자 지냄. 당시 박지원을 처음 만났던 박제가의 글이 남아있음. 그 글에 보면, 박지원의 집을 중심으로 이덕무의 사립문이 북쪽에 마주서있고, 李書九의 사랑이 서쪽에 있었으며, 수십 걸음 떨어진 곳에 徐常修의 서재가 있었으며, 북동쪽으로 꺾어진 곳에는 柳琴, 유득공의 집이 있었음. 한 번 방문하면 열흘이고 한 달이고 그곳에 머물면서 詩酒로 밤을 새곤 함. 심지아 박제가는 아내를 맞이하는 날에도 이들과 어울리느라고 삼경이 넘도록 벗들의 집을 돌아다녔음. 박제가의 「백탑청연집서(白塔淸緣集序)」(첨부 자료1)를 통해서 이들 주변을 그려볼 수 있음.
- 1778년, 연암은 전의감동 생활을 청산하고 燕巖峽으로 들어감. 1776년 정조가 즉위하자 정조 즉위를 반대하던 僻派가 숙청되면서 時派의 거두 洪國榮이 정권 장악. 박지원의 三從兄 朴在源이 홍국영의 비위를 거슬러 파직되면서, 평소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박지원을 칠 생각을 함. 홍국영 밑에 있는 협객들과 교유가 있던 백동수가 먼저 정보를 입수하고 박지원을 연암협으로 은거하도록 조처함. 유언호도 연암으로 은거하도록 권함.
- 때마침 연암의 친구 兪彦鎬도 開城留守로 자청하여 나가서 박지원을 도움. 그의 주선으로 박지원은 개성 부근 금학동 별장으로 거처를 옮긴 뒤 동네 학동들을 가르침.

- 그리고 나서 정국이 안정되자 서울을 오가던 그는, 1780년 삼종형 박명원의 자제군관 자격으로 중국을 가게 됨.

- 이들은 정치적인 당색에 관계없이 학문과 예술을 가운데 두고 동지적 결속을 한 것. 따라서 이들 사이에서 友道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것은 당연한 일. 그런 흔적을 「취답운종교기(醉踏雲從橋記)」(연암집 권10 / 첨부 자료2)에서 느낄 수 있음.

2. 『연암집』의 편찬

- 박지원은 『열하일기』를 쓰고 나서 자신의 옛 원고들을 없앴다고 함.

- 박지원의 시와 문장을 비롯해서 여러 저작들을 망라한 문집 『연암집』이 편찬된 것은 구한말. 손자였던 환재(瓛齋) 박규수(朴珪壽)가 주변 사람들의 제의에도 불구하고 『연암집』 간행을 반대. 평소 박지원의 글이 유림들의 비방을 받았기 때문에 공간할 수 없다는 것이 박규수의 해명. 그러는 사이에 박지원의 글은 사람들에게 필사본으로 유통되었고, 그 중 일부가 현재 전하는 필사본으로 남았음.

- 『연암집』이 처음으로 활자화된 것은 1900년(광무4). 당시 고문(古文)의 대표 주자였던 창강(滄江) 김택영(金澤榮)이 박지원의 시문을 모아서 『연암집』을 출판한 것. 이어서 1901년에는 『연암속집(燕巖續集)』을 간행. 이 책들은 종래 일반적인 문집처럼 후손이나 문인들에 의해서 간행된 것이 아니라 당대 지식인들의 모금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1] 또한 김택영은 1916년에 7권3책 분량으로 『중편연암집(重編燕巖集)』을 편찬. 그렇지만 김혈조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김택영의 편집본은 박지원의 시문을 망라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데다 1916년본은 임의로 깎아내거나 구절을 보충한 것들이 많아서 꼼꼼한 관찰을 요한다고 함.

- 필사본으로 가장 방대하게 남아있는 것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승계문고(勝溪文庫)로 소장되어 있는 것. 2권1책이 빠져있기는 하지만 모두 27권 22책의 방대한 양. 그 외에 숭실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자연경실본(自然經室本), 연세대학교와 영남대학교 등에 소장되어 있는 판본 등을 비롯하여 여러 종류가 전함.[2]

- 이들을 통틀어서 박지원의 시문을 가장 널리 망라한 것은 역시 박영철(朴榮喆, 1879~1939)이 편집하여 활자본으로 간행한 『연암집』. 그는 박지원의 시문을 널리 모으고, 거기에 『열하일기』와 『과농소초(課農小抄)』까지 넣어서 가장 방대한 『연암집』을 1932년 5월, 17권 6책 분량으로 간행.

- 『다산시고(多山詩稿)』(활자본, 주백인쇄소 발행, 1929)가 그의 문집. 살아 생전에 출판

---

1) 김혈조, 「연암집 이본에 대한 고찰」(『한국한문학연구』 제17집, 한국한문학회, 1994), 160쪽. 『연암집』 이본에 대한 정보는 김혈조 교수의 이 논문 외에도 김윤조 교수의 「박영철본 연암집의 착오 탈락에 대한 검토」(『한문학논집』 제10집, 근역한문학회, 1992), 김영진 교수의 「박지원의 필사본 소집들과 작품 창작년 고증」(『대동한문학』 제23집, 대동한문학회, 2005), 정민 교수의 「새 발굴 연암선생서간첩의 자료적 가치」(『대동한문학』 제23집, 대동한문학회, 2005)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논의하는 『연암집』에 관한 서지 정보는 이들 논문에 의거하여 정리, 보완한 것이다.

2) 이 외에도 최근 성호기념관 소장본 『열하일기』(12책 26권, 614장, 한문필사본)가 공개되어 새롭게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 판본이 19세기 서울 지역의 장서가가 자신이 소장하기 위해 정서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문집을 편찬하기 위해 그의 아들인 박종채의 주도로 편찬된 것인지, 그 성격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 다만 현재 발견된 필사본 중에서도 깔끔하게 정서된 선본(善本)임에는 틀림없다. 이에 대한 소개는 양승민 선생이 「연암산방 교정본 '열하일기'의 발견과 그 자료적 가치」(한국고전문학회 제250차 정례 학술발표회 자료집, 2009년 6월 27일)에서 상세하게 하였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된 책. 그는 전주의 갑부 집안 출신으로, 이토 히로부미의 양녀로 유명한 배정자(裵貞子)의 세 번째 남편.

- 일본 동경에 있는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서 러일전쟁에 참전했으며, 욱일장(旭日章), 태극장(太極章) 등 일본 정부에서 주는 훈장을 여러 차례 받음. 한일합방 이듬해인 1911년 익산군수를 시작으로 함경북도와 전라북도 참여관(參與官), 강원도지사, 함경북도지사 등을 지내다가 동양척식회사 감사를 시작으로 재계에 진출. 이후 금융업 등에 종사하면서 상당한 부를 축적. 친일파 중에서도 핵심 친일파였음.

- 박영철본『연암집』이 완벽하게 편찬된 것은 물론 아님. 특히 일본을 폄하하여 표현한 것들은 글자를 바꾸거나 구절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고쳐서 출판. 다른 판본을 참고하여『연암집』을 편찬했다는 증거도 여러 곳에 나타나지만, 여전히 문집 간행 과정에서의 오자나 탈자, 원문의 부정확함 등은 비판 받을 곳이 많음. 우리 학문의 힘이 닿지 못해서 아직은 완전히 정리하지는 못했지만, 박지원의 여러 판본을 확인하고 정본을 확정하는 일은 반드시 거쳐야 할 길목일 것.

3. 유득공(柳得恭, 1748~1807)의『발해고(渤海考)』

- 유득공은 증조부(柳三益)과 외조부 홍이석(洪以錫)이 서자였으므로 서자 출신으로서의 사회적 불이익을 많이 받았음.

- 부친이 요절하자 모친과 함께 외갓집으로 가서 살았는데, 무반 집안이었으므로 그 영향을 일정하게 받았음. 그러나 문필을 업으로 하는 집안에 무반으로서의 성행이 나타나자 모친은 유득공을 데리고 한양으로 돌아옴.

-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숙부인 유금(柳琴, 초명은 璉). 1776년 연행길에『한객건연집』을 엮어서 중국에 소개한 사람이 바로 유금임.

- 1774년(영조 50) 사마시에 급제하여, 이후 여러 관직을 지냄.

- 1779~1784년, 검서관으로 근무.

- 검서관을 그만둔 후 포천현감으로 나감. 그곳에서 성해응(成海應)과의 교유가 시작된 것으로 보임. 성해응은『발해고』에 서문을 썼던 인물. 이 시기에『발해고』를 저술.

- 이후 양근군수, 광흥창주부, 사도시주부, 가평군수, 오위장, 풍천도호부사 등을 지냄. 그 사이에 1778년, 1790년, 1801년에 연행을 함. 1805년 8월 5일 모친 사망과 함께 그의 생애 역시 알려진 바가 거의 없음.

- 통일신라 시대와 남북국 시대. 우리는 그 동안 발해라고 하는 위대한 제국을 우리 역사에서 잊어버리고 있었음.

- 오랜 전쟁을 끝낸 뒤,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찾는 작업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유행. 이익(李瀷), 박지원(朴趾源), 박제가(朴齊家), 유득공(柳得恭), 안정복(安鼎福), 정약용(丁若鏞) 등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고대사를 포함한 조선의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음. 이는 화이론적 세계관에 균열이 오고 있었던 사회적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음.

- 20대 후반 유득공은 구암(久庵) 한백겸(韓百謙, 1552～1615)이 지은『동국지리지(東國地理誌)』를 구해서 읽다가 여기서 소재를 얻어 여러 편의 역사시를 연작으로 지었는데, 이 책이 바로『이십일도회고시』. 이 책의 서문에 의하면 박제가는 1778년 첫 원고를 완성한 뒤, 1785년에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다듬었으며, 1790년 북경에 갔을 때 사고전서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四庫全書) 편찬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당대의 석학 기윤(紀昀)이 이 책을 필요로 해서 준 뒤 그것이 인연이 되어 1792년 이 책에 주석을 붙임. 서문에 나타난 것만 해도 세 차례나 원고를 손질했으니 유득공의 역사 연구는 호기심으로 하루아침에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음.

- 『이십일도회고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발해 문제를 단독 저술인 『발해고(渤海考)』로 써내면서 다시 우리 고대사에 관심을 가짐. 한백겸의 책에서는 고구려 부분 뒤편에 부록처럼 발해가 기록되어 있지만, 발해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찾아서 체계적인 저술을 한 것은 역시 유득공의 『발해고』를 첫 책으로 쳐야 할 것.

- 그동안 널리 이용되어 왔던 판본은 조선고서간행회에서 1911년 간행한 것.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두 종의 이본과 경희대학교 소장본(4권본) 등을 감안할 때 유득공이 단박에 책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수정을 거쳤다는 점이 확인됨.

- 이 책들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된다. 책의 구성이 군고(君考), 신고(臣考), 지리고(地理考), 직관고(職官考), 의장고(儀章考), 물산고(物産考), 국어고(國語考), 국서고(國書考), 속국고(屬國考) 등 9개의 '고(考)'로 이루어진 판본이 있고, 군고, 신고, 지리고, 직관고, 예문고(藝文考) 등 5개의 '고'로 이루어진 판본이 있다. 이것을 연구자에 따라서는 9고본과 5고본으로 지칭하기도 하고[3], 내용에 관계없이 권수(卷數)에 따라 1권본과 4권본으로 구분하여 지칭하기도 한다.[4]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자의 원고를 유득공이 보완하고 정리해서 후자의 책으로 만들었으리라는 점이다. 9개의 편목이 5개로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자의 내용이 후자에 모두 반영된 것은 물론 전체적인 분량 역시 상당히 늘어났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여러 해를 두고 유득공은 발해와 관련된 자료를 모으고 자신의 생각을 다듬었던 것이다.

- 고려가 발해의 역사를 편찬하지 않았던 것을 큰 실수. 이 때문에 발해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워졌음. 이런 식의 논리는 연암에게도 보이는 것.

- 새로운 역사의 복원을 위해 지금이라도 발해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함.

4. 백동수(白東修)의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

- 명나라 척계광의 『기효신서(紀效新書)』가 임진왜란 때 들어온 것으로 추정. 이여송에게 보여달라고 했지만 거절 당했다는 기록 있음. 이후 선조의 명으로 이 책을 구하게 된 것으로 보임.

- 우리의 장기는 전통적으로 弓術. 화약 병기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화탄 제조의 어려움 때문에 궁술은 여전히 중요한 분야.

- 임진왜란을 당한 조선으로서는 새롭게 군 조직을 강화할 필요를 절감. 선조는 임란 중에 훈련도감의 설치를 명함. 원래는 포수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음. 그러나 화약의 부족으로 기사(騎射), 격자(擊刺) 등의 방법으로 군사를 훈련시킴. 이는 『기효신서』의 방식에 기댄 것임. 그 과정에서 『기효신서』를 주목하게 되고, 왕명으로 구해보게 된 것.

- 내용 파악이 어려울 때 명나라 군사들과 접촉하여 질의를 하며 내용을 파악한 사람이

---

3) 임상선, 「유득공의 발해고 이본」(『역사학보』 제166호, 역사학회, 2000) 참조.

4) 유득공의 『발해고』(송기호 역, 홍익출판사, 2000년 초판 제1쇄 : 2001년 개정판 제1쇄)에 수록되어 있는 송기호 교수의 해제 참조. 이 책은 『발해고』의 원문을 영인해 놓았을 뿐 아니라 이것을 활자본으로 전환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여러 가지 점에서 도움이 된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한교(韓嶠, 1556~1627). 한교는 임란이 일어나자 37세에 의병을 일으켜 공을 세운 유생. 후에 유성룡의 추천으로 『살수제보(殺手諸譜)』 번역. 부모가 함께 돌아가시자 복상 때문에 작업이 중단되지만, 왜군이 영남 일대를 점거한 상태에서 다시 번역 작업을 하게 됨. 특히 설명만 있고 '譜'가 없어서 여러 동작을 연결시키는 것이 어려웠음. 이 때 직접 훈련도감 병사들을 데리고 명군의 진영으로 가서 의문점을 해결함.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598년, 한교는 『무예제보(武藝諸譜)』를 엮음. 殺手六技로 구성되었음. 弓矢 등의 長兵이 빠지긴 했지만,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시급하게 배워서 왜적을 친다는 목적을 생각하면 시의적절한 책이었음.

- 여러 사정으로 인해 훈련도감은 三手(砲手=銃兵 / 射手=弓手 / 殺手=槍劍兵)를 기본으로 훈련하게 됨.

- 1759년(영조 35), 『무예신보(武藝新譜)』 간행됨. 이 책의 간행에는 『기효신서』, 『무비지(武備志)』 등의 영향이 컸음. 『무비지』는 명나라 모원의(茅元儀)가 50권 분량으로 편찬한 것으로, 1737년 중국에 갔던 사신이 구해온 책을 1738년 평안감영에서 간행한 것. 거기에 『무예제보』 『병학지남(兵學指南)』 등의 편찬 성과를 바탕으로, 영조는 1759년(영조 35) 사도세자에게 『무예신보』를 편찬하도록 명함. 그러나 그의 죽음과 함께 편찬 작업은 중단.

- 사도세자의 행장에 의하면 그는 무예를 매우 좋아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했는데, 25세에 편찬한 『무예신식(武藝新式)』(『무예신보』를 지칭)은 18기로 구성되었다고 함.

- 정조가 왕명으로 『무예도보통지』를 간행하도록 함. 1790년(정조 14) 완성.

- 이 책의 편찬에 간여한 인물 : 이덕무(그의 연보에 의하면 1789년 4월에 편찬 작업을 시작하여 1790년 4월 30일에 임금에게 올렸다고 되어 있음. 1질 4책을 하사 받았다는 기록도 있음.), 박제가(『북학의』에서 근대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면서 용병제를 실시하여 精兵을 양성하자고 주장.), 백동수 등

- 백동수의 생애는 정확하게 재구할 수 없음. 기록 부족. 『무예도보통지』의 실무 책임자이며 試演者였음.

- 이덕무의 처남이며 연암 그룹의 일원. 이덕무가 박제가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일화를 쓴 글에 의하면(「초정시고서」), 백동수의 집에 갔는데 '樵漁亭'이라는 글씨가 힘차게 있기에 누구의 것이냐고 하니 15세 된 박제가의 글씨라는 말을 들음. 2년 뒤 그들이 만났을 때 그 기억을 떠올림. 이후 연암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박지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첨부 자료 3>)

- 『무예도보통지』야말로 조선의 실정에 맞는 군사 훈련의 교범으로, 실학 시대의 국가관이나 군사적 사유가 발현된 책.

『무예제보』(6기) → 『무예신보』(18기) → 『무예도보통지』(24기)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자료 1> 박제가, 「백탑청연집서」

도회지를 빙 두른 성의 중앙에 탑이 솟아 있어 멀리서 바라보면 으슥비슥 눈 속에서 대나무 순이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그곳이 바로 원각사 옛 터다. 지난 무자(戊子), 기축년(己丑年) 어름 내 나이 18,9세 때 미중(美仲) 박지원(朴趾源) 선생이 문장에 뛰어나 당세에 이름이 높다는 소문을 듣고 탑 북쪽으로 선생을 찾아 나섰다.

내가 찾아왔다는 전갈을 들은 선생은 옷을 차려 입고 나와 맞으며 마치 오랜 친구라도 본 듯 손을 맞잡으셨다. 드디어 지은 글을 전부 꺼내어 읽어보게 하셨다. 이윽고 몸소 쌀을 씻어 다관(茶罐)에 밥을 앉히시더니 흰 주발에 퍼서 옥소반에 받혀 내오고 술잔을 들어 나를 위해 축수(祝壽)하셨다.

뜻밖의 환대인지라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나는, 이는 천고 이전에나 있을 법한 멋진 일이라 생각하고 글을 지어 환대에 응답하였다. 그분에 대해 탄복하던 모습과 지기(知己)에 대한 감동이 이러하였다.

그 무렵 형암(炯菴) 이덕무(李德懋)의 사립문이 그 북쪽에 마주 서있고, 낙서(洛書) 이서구(李書九)의 사랑이 그 서편에 솟아 있었으며, 수십 걸음 떨어진 곳에 관재(觀齋) 서상수(徐常修)의 서재가 있었다. 또 거기서 북동쪽으로 꺾어지면 유금(柳琴) 유득공(柳得恭)의 집이 있었다.

나는 한번 그곳을 방문하면 돌아가는 것을 잊고 열흘이고 한 달이고 머물렀고, 지은 시문과 척독(尺牘)이 곧잘 책을 만들어도 좋을 정도가 되었으며, 술과 음식을 찾으며 낮을 이어 밤을 새곤 했다.

아내를 맞이하던 날 저녁의 일이었다. 장인댁의 건장한 말을 가져다 안장을 벗기고 올라타고는 어린 종 하나만 따르게 하여 밖으로 나왔다. 달빛은 길에 가득하였다. 이현궁(梨峴宮) 앞을 지나 서편으로 말을 채찍질하여 철교(鐵橋)의 주막에 이르러 술을 마셨다. 삼경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린 뒤 여러 벗들의 집을 두루 심방하고 탑을 빙 돌아 나왔다. 당시 호사가들이 이 일을 두고 왕양명 선생이 철주관도인(鐵柱觀道人)을 방문한 일에 비기었다.

그로부터 6, 7년이 지나면서 벗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가난과 병이 날이 갈수록 심하였다. 어쩌다 만나면 서로의 무양(無恙)함을 다행으로 여기곤 하나 풍류는 지난날에 비해 줄어들고 얼굴빛은 옛날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제야 벗과의 교유도 참으로 피할 수 없는 성괴가 있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중국 사람들은 벗을 제 목숨같이 여긴다. 그러므로 어양(漁洋) 왕사진(王士禛) 선생은 「빙수(氷修) 우장(耦長)이 달밤에 모자를 벗고 맨발로 나를 찾아와서」라는 시를 지은 것인데, 소장형(邵長蘅)의 『청문여고(靑門旅藁)』에는 어양 선생과 이웃하여 사는 아름다운 일들을 회상하고 기록하여, 만남과 이별에 대한 사연을 담았다. 이 시권(詩卷)을 볼 적마다 다른 세상에 태어났지만 마음은 같음을 느끼고 벗들과 더불어 탄식한 지도 오래된 일이다.

벗 이희경(李喜經)이 연암과 형암 등 여러 분과 나의 시문 척독을 베껴 약간 권의 책을 만들었다. 나는 제목을 붙여 『백탑청연집』이라 하고 이 서문을 지었다. 이 글을 통해 우리의 교유가 당시에 얼마나 성황이었는지를 보여주고, 그 김에 평소의 일 한두 가지를 소개하는 바이다. (박제가, 「백탑청연집서」, 『정유집』 권1; 안대회 역, 『궁핍한 날의 벗』, 태학사, 2000)

<자료 2> 박지원, 「취답운종교기」

초가을 열사흗날 밤에 朴聖彦[5]이 李聖緯[6] 및 그 동생 李聖欽[7], 元若虛[8], 呂君, 鄭君, 동자 見龍과 함께 李懋官[9]의 집에 들렀다가 무관을 데리고 나를 찾아왔다. 마침 그 때 참판 徐元德[10]이 먼저 와 자리하고 있었다. 성언은 책상다리를 한 채 비스듬히 팔을 짚고 앉아 자주 시각을 살피며 입으로는 가겠다고 하면서도 짐짓 한참동안 눌러 앉아 좌우를 살피는데, 아무도 선뜻 먼저 일어나질 않고 원덕 또한 갈 뜻이 없었다. 마침내 성언은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가 버렸다.

한참 있다가 동자가 다시 와서 성언이 말을 전했다.

"손님은 이미 가셨을테지. 우린 거리를 산보하고 있는데, 그대가 오길 기다려 술을 마시려고 하네."

이 말을 듣고 원덕이 웃으면서 말했다.

"秦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내쫓는구만."[11]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동자를 데리고 거리로 나갔더니, 성언이 나를 보고 이렇게 나무랐다.

"달밝은 밤 어른이 찾아갔으면 술을 준비해 환대하지는 못할망정 貴人만 붙들고 이야기하면서 어른을 밖에 한참이나 서있게 한단 말인가."

내가 생각이 짧았음을 사죄하자 성언은 주머니에서 50전을 꺼내 술을 샀다.

조금 취하자 운종가로 나가 종각 아래에서 달빛을 받으며 거닐었는데, 시각은 이미 3경 4점을 친 상태였다. 달빛은 더욱 밝아져 사람 그림자 길이가 모두 열 길이나 되어 스스로 봐도 섬뜩하니 무서웠다.

거리에는 개들이 마두 짖어댔는데, 동쪽에서 오(獒) 한 마리가 나타났다. 흰 빛깔에 비쩍 말랐는데, 빙 둘러서서 쓰다듬어주자 좋아라 꼬리를 흔들며 머리를 숙인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언젠가 이런 말을 들었다. '오'는 몽고산으로 크기가 말만 하고 몹시 사나워 길들이기가 어렵다고. 중국으로 들어간 것은 그 중에 특히 작은 종으로 길들이기가 쉬우며, 우리 나라로 온 것은 더욱 작은 종이지만 이것도 우리나라 재래종 개와 비교하면 훨씬 큰 편이다. 이상한 것을 봐도 짖지 않지만 한 번 화가 나면 으르렁거리며 사납게 구는 바 우리 말로는 '호백(胡白)'이라고 부른다. 모두 고기를 좋아하지만 비록 몹시 굶주려도 깨끗하지 않은 것은 먹지 않으며 심부름을 시키면 사람 마음을 잘 알아차린다. 그래서 목에 편지를 걸어주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꼭 전하고 혹시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꼭 그 주인집의 물건을 물고 돌아와서 그것으로 갔다온 징표를 삼는다고 한다. 매년 사신들을 따라 우리 나라에 들어오지만 대부분 굶어죽으며 항상 혼자 다니면서 다른 개와 어울리지 못한다.

---

5) 박성언 : 박제가의 嫡兄 朴齊道.

6) 이성위 : 李喜經의 자. 서얼 출신. 젊은 시절 연암을 모시고 백탑시사를 결성한 바 있으며, 연암의 처남 이재성과 함께 훗날 연암의 임종을 지키기도 했음.

7) 이성흠 : 이희경의 동생 李喜明.

8) 원약허 : 元有鎭의 자. 이덕무의 누이동생과 결혼함.

9) 이무관 : 이덕무.

10) 서원덕 : 徐有隣. 徐孝修의 아들로, 온건 소론에 속하는 인물. 도승지, 대사헌, 대사간, 호조참판을 거쳐 이조판서를 역임하게 된다.

11) 이 글의 창작 연대를 1773년(영조49)으로 추정할 때, 당시 연암은 37세, 이성위는 29세, 이성흠은 25세, 원약허는 23세, 이덕무는 33세, 서덕원은 36세로 상당한 고위직 인물이었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무관이 취해서 개에게 '豪伯'이라는 자를 지어주었다. 잠시 후 개가 보이지 않자 무관은 서글프게 동쪽을 향해 서서, "호백! 호백! 호백!"하고 마치 친구를 부르듯이 세 번이나 부르는 것이었다. 우리가 모두 크게 웃어 거리가 소란해지자 개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더욱 짖어댔다.

그러다가 玄玄의 집을 찾아가 술을 더 마셨다. 우리는 크게 취하여 운종교를 밟으며 난간에 기대어 대화를 나누었다. 그 옛날 대보름날 밤에 連玉[12]이 이 다리 위에서 춤을 춘 적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白石[13]의 집으로 가서 차를 마셨더랬다. 惠風[14]은 장난 삼아 거위의 목을 끌고 여러 차례 빙빙 돌면서 마치 하인에게 뭔가를 분부하는 시늉을 하여 우리를 웃기고 즐겁게 하였다. 벌써 6년 전의 일이다. 혜풍은 지금 남녘의 錦江에 노닐고 연옥은 서쪽 평안도에 나가 있는데, 다들 별고 없는지.

우리는 이번에는 수표교로 가서 다리 위에 죽 벌여 앉았다. 달은 바야흐로 서쪽으로 기우는데 참으로 발그레하고, 별빛은 더욱 반짝거려 둥글고 크게 보이는 게 마치 얼굴에 쏟아질 듯하였다. 이슬은 무거워 옷과 갓이 다 젖었으며, 흰 구름이 동쪽에서 일어나 비껴 흐르다가 천천히 북쪽으로 가는데 도성 동쪽의 푸른 산기운은 더욱 짙었다. 개구리 소리는 완악한 백성들이 아둔한 고을 원한테 몰려가 와글와글 소송을 제기하는 듯하고, 매미소리는 엄격하게 공부시키는 글방에서 정한 날짜에 글을 외는 시험을 보이는 것 같고, 닭 우는 소리는 임금에게 간언하는 것을 자신의 소임으로 여기는 한 강개한 선비의 목소리 같았다.

<첨부 자료 3> 기린협(麒麟峽)으로 들어가는 백영숙(白永叔)에게 증정한 서문[15](贈白永叔入麒麟峽序,『연암집』권1)

영숙은 장수 집안의 자손이다. 그 조상 중에 충성을 다하여 나라에 목숨 바친 이가 있어서 이제까지도 사대부들이 그를 슬프게 여긴다.[16]

영숙은 전서(篆書)와 예서(隷書)를 잘 쓰고 전장(典章)과 제도(制度)도 익숙히 잘 알며, 젊은 나이로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아 무과에 급제하였다. 비록 시운(時運)을 타지 못해서 작록(爵祿)을 누리지는 못하였으나,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 죽을 그 뜻만은 조상의 공적을 계승함직하여 사대부들에게 부끄럽지 않았다.

---

12) 연옥 : 柳璉의 자. 호는 彈素, 幾何. 후일 柳琴으로 개명. 서얼 출신으로 유득공의 숙부.

13) 백석 : 李弘儒의 자. 젊은 시절 홍대용의 스승인 金元行에게서 수학함.

14) 혜풍 : 柳得恭의 자. 서얼 출신.

15) 강원도 인제군(麟蹄郡) 기린면(麒麟面)의 산골짜기로 이주하고자 떠나는 벗 백동수(白東修 : 1743 ~ 1816)를 위해 지은 증서(贈序)이다. 백동수는 자(字)가 영숙(永叔)이고, 호는 인재(靭齋), 야뇌(野餒) 등이다. 그는 평안도 병마절도사를 지낸 백시구(白時耉 : 1649 ~ 1722)의 서자(庶子)인 백상화(白尙華)의 손자였다. 따라서 신분상 서얼에 속하여, 일찍 무과에 급제해서 선전관(宣傳官)이 되었으나 관직 진출에 제한을 받았다. 오랜 낙백(落魄) 시절을 거쳐, 1789년(정조 13) 장용영 초관(壯勇營哨官)이 되어 이덕무(李德懋), 박제가(朴齊家)와 함께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의 편찬에 참여했으며, 그 후 비인 현감(庇仁縣監)과 박천 군수(博川郡守) 등을 지냈다. 백동수는 이덕무의 처남이기도 하다. 《硏經齋全集 本集 卷1 書白永叔事》 박제가도 기린협으로 이주하는 백동수를 위해 장문의 송서(送序)를 지어 주었다. 《貞蕤閣文集 卷1 送白永叔基麟峽序》

16) 백동수의 증조 백시구가 신임사화(辛壬士禍)에 연루되어 옥사한 사실을 말한다. 소론이 집권하자 백시구는 평안 병마절도사로 있을 때 기로소(耆老所)에 은(銀)을 대여해 준 일로 문초를 받으면서 노론 대신 김창집(金昌集)의 죄를 실토하라는 것을 거부했다가 고문을 당한 끝에 죽었으며 사후에 가산을 몰수당했다. 영조(英祖) 즉위 후 호조 판서에 추증되고 가산을 환수받았으며, 1782년(정조 6) 충장(忠壯)이란 시호가 내렸다. 《夢梧集 卷6 平安道兵馬節度使贈戶曹判書謚忠壯白公神道碑銘》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아! 이런 영숙이 무엇 때문에 온 식구를 거느리고 예맥(穢貊)의 땅으로 가는 것인가?

영숙이 일찍이 나를 위해서 금천(金川)의 연암협(燕巖峽)에 집터를 살펴 준 적이 있었는데, 그곳은 산이 깊고 길이 험해서 하루 종일 걸어가도 사람 하나 만나지 못할 정도였다. 갈대숲 속에 둘이 서로 말을 세우고 채찍을 들어 저 높은 언덕을 구분하며,

"저기는 울을 쳐 뽕나무를 심을 만하고, 갈대에 불을 질러 밭을 일구면 일 년에 조〔粟〕 천 석은 거둘 수 있겠다."

하면서 시험 삼아 부시를 쳐서 바람 따라 불을 놓으니 꿩이 깍깍 울며 놀라서 날아가고, 노루 새끼가 바로 앞에서 달아났다. 팔뚝을 부르걷고 쫓아가다가 시내에 가로막혀 돌아와서는 나를 쳐다보고 웃으며,

"인생이 백 년도 못 되는데, 어찌 답답하게 나무와 돌 사이에 거처하면서 조 농사나 짓고 꿩 · 토끼나 사냥한단 말인가?" 했었다.

이제 영숙이 기린협에 살겠다며 송아지를 등에 지고 들어가 그걸 키워 밭을 갈 작정이고, 된장도 없어 아가위나 담가서 장을 만들어 먹겠다고 한다. 그 험색하고 궁벽함이 연암협에 비길 때 어찌 똑같이 여길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나 자신은 지금 갈림길에서 방황하면서 거취를 선뜻 정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니, 하물며 영숙의 떠남을 말릴 수 있겠는가. 나는 오히려 그의 뜻을 장하게 여길망정 그의 궁함을 슬피 여기지 않는 바이다. (吾壯其志 而不悲其窮)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